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보통합,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
- 의보통합,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

일시 : 1999년 9월 27일(월) 오전 10:30

장소 : 국회 기자실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YMCA, 참여연대, (가칭)민주노동당당준비위원회 (소비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농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빈민)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대학노조, 민주관광, 민주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병원노련, 상업연맹, 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련,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전국의보노조)

121-022 서울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전화 3211-4356 팩스 3211-435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보통합,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  
의보통합,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

〈 기자회견 순서 〉

1. 개회
2. 경과 보고
3. 공동기자회견문 발표
4. 각계 단체 대표 입장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YMCA 신종원 시민개발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신혜수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소장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황창주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허영구부위원장

5. 기자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한나라당 총재면담 예정임.

여·야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월중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의료보험 통합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좌우 되서는 안된다. 의료보험 통합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며, 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의 10여 년간의 운동의 결실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합간 보험 재정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상부상조하는, 국민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미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지역주민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관리운영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내년에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가 50% 이상 인하되는 등 보험료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빌미로 여·야 모두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노조가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통합 후 봉급자의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전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서명운동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용 불안과 조직 이기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현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룩한 거의 유일한 개혁 업적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이는 '생산적 복지'가 그야말로 구두선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통합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9월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국회 통과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여·야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월중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2.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라.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1999년 9월 27일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YMCA, 참여연대,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비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여 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농 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빈 민)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노 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대학노조, 민주관광, 민주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병원노련, 상업연맹, 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련,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전국의보노조)